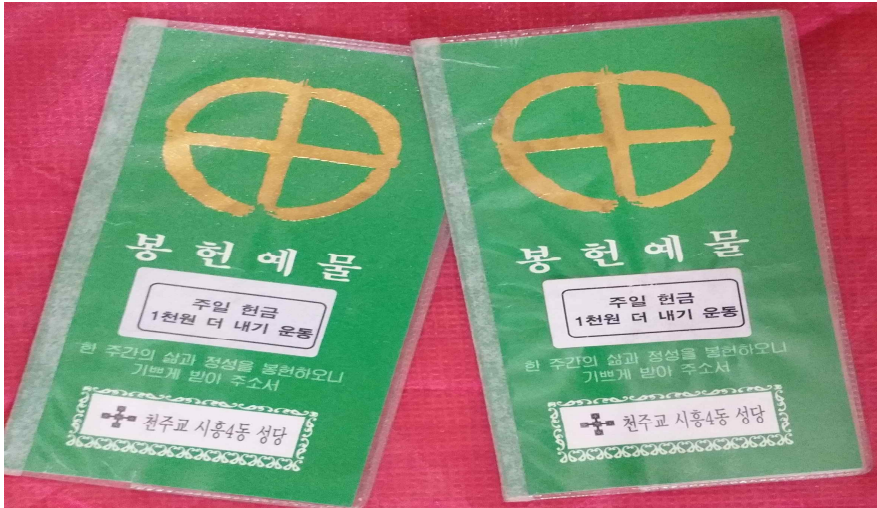


주일 봉헌금 '하느님께 솔직하고 주위 슬픔 없이 당당하게 봉헌해야'



진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4월8일(일)부터 주일 미사 봉헌예물을 봉투에 넣지 아니하고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 직접 봉헌예물 함에 봉헌하기로 새로 부임 해 오신 이계철(라파엘) 주임 신부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임 신부님은 '오늘부터 주일 봉헌금을 봉투에 넣지 아니하고 현금함에 직접 봉헌함에 넣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생각은 자유시겠지만..... 하느님께 정성스럽게 바치는 예물이 남을 의식하여 봉투 속에 숨겨 소심하게 바치는 것보다 당당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일주일의 감사하는 예물을 올린다는 마음이 주님께 보시기에 더 좋을 것이며, 특히 주일 봉헌금 집산 할 때에도 봉투에서 현금을 빼내어 다시 합산을 하는 불편한

요소를 간소화하는 것이 정산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시간과 복잡함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본당의 모든 서식과 규칙의 테두리를 벗어나 간소하고 교우들의 편안하게 즐거운 가운데 자발적 참여와 화합으로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속에 서로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희망찬 신앙의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셨습니다. 주일 봉헌금은 한주 동안 희생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의 피를 제단에 바치는 성경 구절에도 나옵니다. 피는 죽음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주일 봉헌금은 크게 성무활동비와 교회유지비 및 단체지원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무활동비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생활하는 비와 피정비용이고 교회유지비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사무실 인건비며 교회건물유지비입니다.

매주 토요일 깨끗한 성전 청소 각 구역 분담제로

성전청소를 매주 토요일 구역별 분담제로 4월14일(토)에는 제 10구역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참여하여 봉사를 하였다.

성전 대리석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먼지와 불순물을 빨아들인 다음 물걸레로 의자를 깨끗이 닦은 의자를 제 자리에 정성껏 정리하고 이어 교육관 만남의방 바닥 화강암 물걸레질과 1층 남, 여 화장실 청소로 구역 봉사가 마칩니다.

